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8호 【루계 제24936호】 주체104(2015)년 6월 7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원아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시였으며 올해 설날에는 몸소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시며 천만부모의 정과 열을 합쳐도 비기지 못할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원아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철따라 과일과 갖가지 영양식료품들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이번에 또다시 육아원, 애육원운영에 필요한 설비들과 문화용품들, 식료품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6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한광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진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 원아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선물에는 원아들모두를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우시려는 높으신 뜻이 깃들어있으며 보육원들과 교양원들, 종업원들이 보육과 교육교양을 책임적으로 잘할것을 바라시는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보육원들과 교양원, 종업원들이 날이 갈수록 더더욱 뜨거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원아들을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평양애육원 원장 최송란, 평양육아원 초급당비서 박현숙, 평양애육원 부원 김철운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각별히 보살펴주시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끝없는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아들딸들로 키워나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든 원아들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는 충정동이들로, 창발성과 자립성, 아름다운 도덕품성과 건강한 체력을 갖춘 새 세대들로 키울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원아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며 원아들의 특성에 맞게 교수교양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보건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설비들을 잘 애호관리하고 경영활동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며 원아들의 보육교양, 지능교육과 육아원, 애육원의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단마르크, 스웨리예, 핀란드에서는 독보회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좌담회가 5월 27일과 29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날로 로골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백승의 기치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지난 세기말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조선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은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떠나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김정일각하의 고귀한 한생을 진보적인류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 물공사설계 및 감독기업소 판개대상책임자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자주성이 강하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가 방글라데슈 로동당, 민족사회주의당, 공산당(맑스-레닌주의), 공산당, 사회주의당, 인민련맹, 주체사상연구소, 선군정치연구소조,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의 공동발기로 5월 31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엠디. 하룬 아르 라쉬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날들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진보적정당, 단체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조직들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에스빠냐준비위원회가 1일 마드리드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소개선전하며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힘찬 포성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선군조선의 창조정신, 창조본때를 만방에 과시하며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이 빠른 속도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에 진입한 성, 중앙기관의 많은 단위들이 인민군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맡은 대상건설전투장들마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완강한 공격정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의 결정체인 미래과학자거리를 당창건 70돐까지 무조건 완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릴 드높은 열의밑에 해당 단위 당조직들에서는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전투장들을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게 하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공세작전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철도성려단 당조직에서는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건설자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의 포문을 일제히 열었다.

려단안의 일군들은 맡고있는 대상건설의 중요성을 건설자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리용하여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특히 당일군들부터가 현장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들어 해제끼는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고 돌격대원들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뜨거운 진정을 바치며 대중을 새로운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철도성녀성취주악단, 철도성예술선전대의 경제선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각 대대별생산경기가 조직되여 건설자들의 사기를 한층 북돋아주고있다. 한편 성안의 청년동맹원들, 직맹원들의 야간지원돌격대활동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건설현장의 그 어디서나 울려퍼지는 당일군들의 힘찬 구령소리와 대중을 앙양에로 고무추동하는 혁명가요의 노래소리, 대오의 앞장에서 기발들고 나가는 일군들의 이신작칙의 모습은 건설장을 용암마냥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하여 공사의 첫삽을 박은지 열흘 남짓한 기간에 맡겨진 대상건설물들의 기초공사가 완전히 끝났으며 건설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에로 건설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은 체육성련대의 당조직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맡은 대상건설을 맨 먼저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운 이곳 일군들은 사상의 무기를 메고 건설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일군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도, 정치사업도 언제나 현장에서 화선식으로 진행하며 새로운 공격정신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드세게 울려나가고있다. 힘있는 방송선전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 혁신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소개하는 축하방송은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더 북돋아주고있다.

중대별로 이동속보판과 경쟁도표가 전개되고 승리를 상징하는 붉은 기발들이 펄펄 휘날리는 건설현장은 말그대로 격전장을 방불케 한다.

우리는 불가능이란 말을 모른다, 공정계획수행에서는 래일이란 있을수 없다는 이곳 건설자들의 드팀없는 신념에 의하여 비상한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이밖에도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동원된 수도건설위원회,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릉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당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계기와 정황에 맞게 진행되는 당일군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온 건설장을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이들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는 어렵고 방대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충정의 마음,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자랑찬 승리의 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설 비상한 정신력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다.

들끓는 전투현장을 최전방지휘소로 삼고 대중을 새로운 시대정신, 조선속도창조에로 고무추동하는 당조직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하여 공사실적은 더욱 뛰여오르고 건설장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격동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윤명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100% 국산화된 합금철개발에 련이어 성공

부령합금철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이제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립장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부령합금철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제적실리가 큰 합금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규소바리움계합금철에 이어 새로 개발된 규소희토류계합금철, 4원계합금철들은 100% 우리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고있다. 우리 식의 생산방법이 도입된 이 합금철들은 생산원가가 적고 탈류, 탈산작용과 금속조직의 균일화, 미세화가 잘 보장되여 강질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합금강생산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게 될 이 성과는 합금철분야에서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어나가는 굴지의 합금철생산기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억센 기상의 과시이며 창건 일흔돐을 맞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이다.

일찌기 금속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합금철을 더 많이 개발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들어설 불같은 한마음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새로운 합금철개발을 위한 문헌자료들을 연구한데 기초하여 100% 국산화된 합금철을 개발한데 이어 그 생산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특히 량영호, 김덕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기술적진보에 생산적앙양의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앞장에 섰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두뇌전, 실력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기술자들의 사업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연구방향을 100%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합금철생산에로 지향시키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였다. 몇차례의 시험에서 실패할 때도 있었고 필요한 원료를 찾아 수천리를 다녀올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갔다.

이곳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초행길을 걷는 심정으로 새로운 합금철개발에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쳤으며 공장의 오랜 기능공들은 새로운 합금철생산을 공업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과정에 강질을 개선하고 중량레루를 비롯하여 인민경제발전을 추동할수 있는 여러가지 합금강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새로운 합금철들이 개발되였다.

지금 각이한 용도에 쓰이는 강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합금철개발경쟁이 벌어지고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합금철들을 어느 한 금속공장에 도입한 결과는 대단히 좋았다. 이 단위 로동자, 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 국산화가 실현된 새로운 합금철들은 탈산, 탈류작용을 비롯한 야금학적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월하며 강철의 기계가공특성과 주물품의 질이 높아진것은 물론 내열성과 내마모성 등이 다른 합금철을 리용하여 생산한 금속보다 높다고 한다. 우리의 원료와 합금원소에 의거한것으로 하여 그 생산전망과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락관적이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 제품개발과 생산장성의 열쇠가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주목되는 성과들을 거두었다.

강한 민족적배짱과 불타는 애국심에 넘쳐있는 부령합금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합금철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이미 개발된 합금철들의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강연선전활동으로 농업근로자들을 고무추동

함경북도의 협동벌들에서

당면한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함경북도의 사회주의협동벌들마다에서 강연선전활동이 힘있게 벌어져 대중을 새로운 혁신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강연선전대를 조직하여 그들이 들끓는 협동벌들에 나가 집중적인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당일군들과 직외강연강사들, 청진시안의 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뭇고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는데 큰 품을 넣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우선 강연강사들이 도의 어디에 나가도 그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고 강연선전활동을 진행할수 있게 도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고 강사들을 위한 강습과 발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여 실무수준을 높여주고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의 좋은 경험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강연강사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자신들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강연을 하기 위하여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지난 5월 22일 온성군 왕재산협동농장에서 첫 강연선전활동을 시작한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현지에 도착하여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전투장에 달려나간 강연강사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격식없는 선전활동으로 대중의 심장마다에 혁신의 불을 달아주고있다. 강연강사들은 하루일이 끝나면 농장원세대들을 찾아가 가정일도 도와주면서 그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자각을 가지고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고무해주고있다.

포전을 들었다놓으며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의 선전활동은 온성군에 이어 경원, 경흥, 길주, 화대, 명간군 등 도의 다른 지역에로 이어지고있다.

지난 기간 강연선전활동을 통하여 대중과 친숙해진 도당일군들과 직외강연강사들은 도의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벼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데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구수하면서도 호소성이 강하게 진행하여 협동벌들마다에서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특히 강연회뒤끝에 진행하는 강연강사들의 예술소품공연은 내용이 풍부하고 감화력이 있으면서도 호소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감동시키고있다.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새벽에 남먼저 포전에 달려나가 일도 하고 쉴참에는 노래를 부르고 시도 읊으면서 강연선전을 화선식으로 다양하게 진행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최근 10여일동안에만도 이들은 도의 수백개 농장들에서 400여차에 걸쳐 연 14만여명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집중강연선전을 진행하여 대중을 당면한 모내기와 영농전투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군에서 농장으로, 농장에서 작업반, 분조로 쉬임없이 이어지는 강연선전활동은 협동벌들마다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강연강사들의 집중강연선전활동에 고무된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기어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 열의밑에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홍단감자가공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더욱 빛내여가자

한드레벌에 부흥의 새봄을 펼쳐주신 위대한 은인

절세위인들의 자욱이 어린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돌아보고

온 나라의 농장벌이 영농전투로 들끓고있는 이 계절 우리는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찾았다.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전변의 새 력사가 긍지높이 펼쳐진 이곳을 돌아보며 우리는 강성부흥의 새봄의 참의미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한드레벌은 애국의 열정으로 들끓고있었다. 푸른빛으로 단장된 큼직큼직한 포전들과 분주히 오가는 뜨락또르들과 일손을 다그치는 농장원들의 모습은 한드레벌의 힘찬 전진의 기상을 한껏 돋구어주고있었다.

《우리 농장의 전변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하늘같은 은덕이 떠올린 고귀한 결실이랍니다.》

포전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허정옥관리위원장의 말은 열렬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고서 절절히 울리였다.

불멸의 화폭들이 련면히 어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9(2000)년 1월의 어느날 강추위속에서도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실줄 그 어이 알았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된 한드레벌을 보고 또 보시며 오늘 와보니 평안북도 태천군의 한드레벌토지정리를 규모있고 시원스럽게 잘하였다고, 정말 멋있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한드레벌이 천지개벽되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제는 옛날 지주가 토지문서를 가지고 한드레벌에 와서 자기 땅을 찾자고 하여도 찾지 못하게 되였다고 하시며 한드레벌이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엄습하는 모진 추위속에서도 이 땅에 강성부흥의 새봄을 하루빨리 펼치시려 토지정리전투장에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난 격정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토지정리전투장을 돌아보시며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라고 하시면서 토지정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토지정리전투를 보다 힘차게 벌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불멸의 자욱을 되새기느라니 은흥협동농장을 세번째로 찾으신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 2000년 1월에 이 협동농장에 와서 토지정리를 한 한드레벌을 돌아보았는데 그때에는 날씨가 몹시 추웠다고 하시던 사연이 돌이켜져 우리의 심금을 울리였다.

정녕 이 땅의 새봄은 우리 장군님께서 엄동설한의 차디찬 추위속에서 애국헌신의 세계를 펼치시며 안아오신 봄이다!

뜨거운 격정속에 봄의 참의미를 절감하는 우리에게는 한드레벌의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안겨들었다.

한드레벌, 얼마나 눈물겨운 사연이 그 이름에 담겨져있었던가. 망국의 그 세월이 고장 농민들은 올망졸망한 뙈기논조차 적실 물이 없어 한드레한드레 물을 퍼서 고달프게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름도 한드레벌로 되였다.

그 한드레벌에 전변의 새 력사, 부흥의 새 력사가 엮어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토지정리의 거창한 위업을 실현하시여 한드레벌을 천지개벽시켜주신것이다.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한드레벌은 실로 장관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인민에게 안겨주신 귀중한 재부로 우리의 가슴속에 더욱 소중히 새겨지였다.

후더워오른 마음을 안고 우리는 은흥협동농장의 곳곳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이였다. 이곳에 꾸려진 전자열람실로 우리를 이끈 농장의 일군은 정연히 놓여있는 콤퓨터들을 가리키며 농장원들이 이곳에서 과학기술학습을 한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전자현미경과 여러 실험기구들, 이곳 농장에서 심고 가꾸는 여러 벼종자들이며 강냉이, 콩, 감자 등의 작물들과 시료들이 놓여있는 토양분석실에도 은흥협동농장의 혁혁한 발전상이 비껴있었다.

우리는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전투장》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농산제1작업반도 돌아보았다. 작업반의 건물들이 알뜰하게 꾸려져있는것도 좋지만 집짐승들이 우리들마다에 욱실거리는 광경은 부흥의 새봄을 맞은 은흥협동농장의 일단을 보여주고있었다. 배추, 오이 등 갖가지 남새들이 풍성히 자란 남새온실들이며 버섯재배장에도 흥하는 이 농장의 모습이 비껴있었다.

아담한 살림집들과 문화회관 등 여러곳을 돌아보느라니 농장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켜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가슴그들먹이 차넘치였다.

주체98(2009)년 11월초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은흥협동농장에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농사도 제대로 지을수 없는 불모의 땅, 사람 못살 곳으로 알려졌던 이 고장이 지금은 풍년작황이 펼쳐져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은흥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이룩하여놓은 고귀한 열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 농사도 잘 짓고 마을도 꾸리느라고 수고한 은흥협동농장의 일군들과 전체 농장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크나큰 믿음과 은정만을 거듭 베푸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은흥리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 격정이 일렁이였다.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이것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마다에 차넘친 열렬한 마음이였다.

하지만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은흥리 사람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며 은흥협동농장의 모범을 전국의 농업생산단위들이 따라배우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주체97(2008)년 7월에도 이곳을 찾으시고 은흥협동농장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알곡생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고귀한 믿음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절세위인들의 은덕에 기어이 알곡증산성과로 보답하자!

은흥리 사람들의 가슴가슴은 하나의 열기로 고동치였다. 모두가 떨쳐나 농장벌에 보답의 마음을 바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전에는 언제나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충정과 의리의 자욱이 새겨지였다.

우리 장군님 그토록 정을 들이신 한드레벌을 영원히 빛내일 마음담아 올해에도 이들은 봄을 맞으며 많은 나무들을 심었다. 한드레벌의 참된 주인이 되여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대대손손 빛내여갈 마음안고 은흥리 사람들은 농사일에서도 군중문화예술활동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에 이들은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하여 한드레벌에 강성부흥의 새봄을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의 은덕을 노래와 춤에 담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흥하는 집안에 자랑도 많아 많은 외국인들이 은흥협동농장을 찾는다고 한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령도아래 천지개벽을 이룩한 농장의 모습에 감탄한다고 한다.

정녕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된 은흥협동농장의 전경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축도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신념을 담아, 불같은 보답의 마음담아 은흥리 사람들은 방울산에 혁명사적비를 세우고 위인칭송의 글발을 아로새기였다. 올해에도 이들은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해제끼였다.

절세위인들의 령도아래 눈부신 전변과 발전의 길로 달음쳐온 은흥협동농장의 래일은 또 얼마나 밝고밝은것인가.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전진과 부흥의 노래드높은 한드레벌에서 우리는 이곳만이 아닌 이 땅우에 밝아오고야말 강성국가의 새봄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본사기자 김인선

두벌농사에 깃든 사연

지금 사회주의협동벌은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혁명적열정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천만군민의 충정의 열도, 애국의 열도에 의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푸르러가는 포전들을 볼때면 농사에서도 인민군대가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어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체92(2003)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인민군부대의 농장을 찾아주시였다.

새로 정리한 네모반듯한 포전들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밀보리바다, 이랑을 꽉 채운 감자밭은 보기에도 흐뭇하였다.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우리 인민군대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앞장에서 관철하여 펼쳐놓은 흐뭇한 풍경이였다.

농장벌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는 기쁨의 미소가 넘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에서 좋은 작황을 마련할수 있은것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데 있다고 하시면서 경험은 당의 방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할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두벌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한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우리의 선군은 인민군대가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선군이라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온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선군!

순간 일군들의 가슴에서는 뜨거운것이 격랑쳤다.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시려 두벌농사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며 인민군대를 그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가 눈물겹게 되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눈굽을 적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인민군대에서는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두벌농사에서 계속 앞장서나갈데 대한 믿음을 주시면서 그 해결방도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농장의 일군들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종자문제를 해결하고 땅을 잘 걸구어 높은 소출을 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할 굳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온천군 운하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미곡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는 이야기

선군시대의 상징

가을걷이가 한창이던 주체98(2009)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농장은 선군시대의 상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농장일군들의 가슴은 벅찬 환희로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곡협동농장은 말그대로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오곡백과 무르익은 협동전야와 과수밭들, 아담한 살림집들, 특색있게 건설된 문화후생시설들과 공공건물들…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미곡협동농장의 가을풍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선군9경으로 불리우고있는데 이 농장의 풍요한 가을풍경까지 포함시켜 선군10경으로 불러야 할것 같다고 하시였다.

선군10경!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미곡협동농장을 전국의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시려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어찌 이런 희한한 풍경이 펼쳐질수 있으랴.

다심한 사랑과 은정

주체99(2010)년 3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경사가 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을 또다시 찾으신것이였다.

관리위원장이 전체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손수 녀성관리위원장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시던 그이의 안색은 한순간 흐려지시였다.

이어 관리위원장동무의 손이 차다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걱정어린 음성이 울렸다. 순간 격정의 파도가 관리위원장만이 아닌 모두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일어번졌다.

내내 들판에서 일하는 농사군의 손이 조금 찬것이 무슨 큰 일이랴만 그 찬손때문에 우리 장군님께서 걱정하신단 말인가.

자신께서는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일년 열두달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온갖 찬눈비, 세찬 바람을 다 맞으시고도 농장일군의 찬손을 두고 그리도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 무엇에 비기랴.

새로 지은 살림집도 돌아보시며

주체95(2006)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새로 지은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어느 한 집에 들리시여 아래방과 웃방을 돌아보시고 부엌으로 나오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집주인의 안해가 메탄가스곤로에 불을 지펴 보여드리였다.

메탄가스곤로를 유심히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메탄가스를 정상적으로 리용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새로 지은 살림집들에서는 메탄가스로 밥도 짓고 국도 끓여먹고있었다. 더우기 여름철에는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 남는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 말씀올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농촌에서 메탄가스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모든 농촌가정들에서 겨울에도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쓰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기세좋게 타오르는 메탄가스의 불길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메탄가스화가 실현된 온 나라 농촌가정들을 그려보시며.

본사기자 한영민

중히 여기신 농민들의 의사

온 나라의 농장들에서 모내기전투를 기세좋게 마감짓고있다.

푸른 주단을 펼쳐가는 모내는기계들의 작업모습도 볼만하지만 발동소리 높이 울리는 뜨락또르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흐뭇한것인가.

드넓은 농장포전들을 주름잡는 뜨락또르들을 바라볼수록 우리 농민들에게 더 좋은 뜨락또르를 보내주시려고 크나큰 심혈을 바쳐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헌신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주체88(1999)년 5월 어느날이였다.

불철주야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겹쌓이신 피로를 조금이라도 푸실것을 일군들이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른새벽 안변군의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였다.

농장의 밭머리에는 여러가지형의 뜨락또르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뜨락또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동을 걸어보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매 뜨락또르들의 속도와 회전반경, 성능과 구조작용에 대하여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마력수를 높인 《천리마》호뜨락또르를 보시고 대단하다고, 없는것과 부족한것이 많고 곤난한 때에 용케 만들었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다.

이어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뜨락또르들도 유심히 살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뜨락또르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가, 이 뜨락또르들의 우결함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새형의 현대적인 뜨락또르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하는것은 뜨락또르를 여러가지 더 들여다 시험해본 다음 결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덤비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좋은것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실현하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

어제는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농약, 비료를 보내주시고 오늘은 이른새벽 농장포전에까지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뜨락또르들의 작업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저 뜨락또르들을 다 보여주었는가고, 농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사일을 제일 잘 아는것도 농민이고 기계를 다룰 사람도 농민이기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어떤 형의 뜨락또르를 만들겠는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은 농민들에게 있다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인민을 하늘로, 선생으로 여기시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 의견을 절대시하여 정책을 세우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잊지 못할 새벽이였다.

본사기자

배움의 글소리에 실려오는 숭고한 미래관

선군으로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땅에 인류가 갈망하고 바라던 교육정책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우리 세대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배움의 나래를 펼치였다면 오늘은 새 세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 넓게 열어주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안에서 아름다운 희망과 꿈을 활짝 피워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육사업은 오늘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며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 조국을 가리켜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성스러운 100년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진 이 뜻깊은 부름을 새겨볼수록 한평생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의 세계가 뜨겁게 안겨온다.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피눈물을 삼키던 해방전에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자식들이 까막눈이 되지 않게 공부시켜보고 싶은 소망만은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쓰신 추억깊은 이야기가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 자신께서는 인편을 통해 어머니가 보내온 돈을 받는 날이면 두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군 하였는데 하나는 학비가 왔으니 망신을 면하게 되였다는 다행스러운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월수입의 전부를 보내주고 집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가 하는 걱정스러운 감정이였다고 못 잊어 회고하시였다.

사실 강반석어머님의 하루수입이란 삯바느질을 해서 마련하시는 5~10전정도의 보잘것 없는 돈이였고 하루 10전씩 받는다고 하여도 월 3원의 돈을 쥐는데 그 3원이라는 금액은 길림육문중학교가 제정한 한달학비와 맞먹는것이였다.

그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마음쓰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소원을 심장에 새기시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도 무료로 공부할수 있는 인민의 새세상을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유격근거지의 아동단학교들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고 해방후에는 근로자들의 교육비부담을 점차적으로 낮추면서 무료교육제를 결합시키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45(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이 실시되였으며 주체47(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이, 주체56(1967)년에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 주체61(1972)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웰남의 호지명주석은 어버이수령님께 우리 나라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부러움을 표시하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서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적자가 나기때문에 할수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그렇다.

온 나라에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는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리해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문제였다. 더우기 돈이 모든것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이것은 오직 인민들과 후대들을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인민의 수령, 인민의 령도자께서 정치를 펴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꽃필수 있는 현실이다.

조국이 그처럼 간고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후대들을 위한 무료의무교육을 변함없이 실시하도록 하시였고 새롭게 수정보충되는 사회주의헌법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는것을 법화하도록 하시였다.

인적드문 산골마을의 네댓명의 학생들을 위해 사랑의 통학렬차가 달리고 섬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비행기가 날으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과 자본주의에 비한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며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우월한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를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아직은 나라사정이 어렵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해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분야도 많으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와 봉쇄책동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하지만 이 땅에 울려퍼지는 온 나라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배움의 글소리, 행복의 웃음소리는 해빛밝은 교정의 창가마다에서 더 높이 울려퍼진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지켜 우리 조국을 발전된 교육강국,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으신 뜻이 어려있다.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새 세기 교육혁명이 힘있게 다그쳐지는 속에 이 땅에는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의 현실이 더욱 자랑스럽게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의 고귀한 결정체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있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며 우리 새 세대들은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날것이다.

채히성

박봉주총리

과학기술전당건설장 현지료해

【평양 6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가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이 응축된 주체건축예술의 상징으로 일떠서는 과학기술전당이 마침내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령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면서 방대한 골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리는 과학기술전당 1호동 1층 중앙현관홀과 7호동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시공실태, 자재보장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당의 명령이라면 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인민군대의 혁명적인 투쟁기풍, 전투적인 일본새를 사회의 일군들이 따라배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지에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21세기 주체건축의 본보기로 끝내기 위한 대책이 토의되였다.

한편 총리는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의 무토양잔디재배장, 온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도시록화에 필요한 수종이 좋은 나무와 지피식물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나무모생산능력을 높이며 양묘장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실현을 적극 추동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하나

각 도당위원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얼마전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은 전당과 온 나라를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각 도당위원회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을 더욱 힘있게 내밀고있다.

각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건설을 통해 우리 당의 후대관, 미래관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할 일념안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일처럼 중대한 사업은 없다고 하시며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입니다. 어린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각 도당위원회들에서는 육아원, 애육원건설을 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받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육아원, 애육원건설을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당창건 일흔돐까지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 부장이상 일군들과 도급기관의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가 조직되고 강력한 건설력량이 무어졌다.

도당책임일군부터 건설현장에 몸을 잠그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건설장에 집중시키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정치사업자료도 현장에서 만들고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도 현장에서 진행하고있다.

방송선전차를 통한 선동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직관선동을 배합하여 진행하고있다. 30분에 한번씩 교체되는 속보와 이동식속보의 내용들은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건설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6월 중순까지 건축공사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사상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힘있는 사상공세는 초등학원 건설장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육아원과 애육원건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가 창조되게 하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패기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단위별, 단계별, 대상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높이 세운 공사과제를 드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대대, 중대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육아원, 애육원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초굴착공사를 석달동안에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신의주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공사진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도급기관 일군들과 신의주시녀맹돌격대원들은 건설장에 달려나가 지대정리와 도로건설을 진행하면서 녀맹기동예술선동대활동으로 건설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으로 육아원, 애육원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도예술선전대와 시, 구역기동예술선동대, 로병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벌려나가는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높은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은 온 건설장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래치게 하고있다.

불리한 조건에서 기초콩크리트치기작업을 한달이나 앞당겨 끝낸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6월 중순까지 건축물의 내외부미장을 마무리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육아원, 애육원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전해가는 로동당시대의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울 일념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선동공세를 드세게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자주 육아원, 애육원건설장에 나가 건설추진정형을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즉석에서 풀어주면서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능란하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난 5월초 도녀맹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시, 군녀맹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경연을 조직하여 온 건설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모든 건축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완전무결하게 건설하기 위해 순결한 량심과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도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육아원, 애육원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하여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육아원, 애육원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장마철에도 공사를 다그쳐나갈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면서 공사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려는 도당위원회들과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각 도육아원, 애육원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후대사랑의 계산법

강원도체신관리국 초급당위원회에서

강원도체신관리국을 찾았던 우리는 단위사업을 내밀면서도 후대들을 위한 일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심혈을 쏟고있는 초급당일군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엿보며 자본주의가 꾸며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이날 초급당비서 염봉진동무는 관리국적으로 도안의 대학, 기능공학교와 원산중등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후원사업을 진행한 정형을 료해해보았다. 생각했던것보다 투자가 적었다. 즉시 해당 일군들을 만났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체신의 현대화와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을 비롯하여 관리국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의 조건에서 그 자금을 대기도 힘든데 후원사업에까지 그렇듯 밑천을 들이기가 곤난하다.

일군들의 얼굴에는 이런 내심이 비껴있었다.

자책되는 점이 있어 초급당일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관리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 대한 학습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이 로작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과 관련한 사상의 진수도 깊이 파악하게 하였다.

하지만 실천에서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학습과 실천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방법으로 배운 내용을 공고히 하며 일군들의 사상관점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야 하겠다고 초급당일군은 결심하였다.

그 찰나 초급당일군은 기사장 전경동무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게 되였다. 조군실원산공업대학에서 현재 교사를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진행하고있는데 세멘트가 떨어져 일시 중단되였다는것이였다.

관리국의 실정에서 볼 때 한kg의 세멘트도 귀중한 때였다.

하지만 초급당비서와 국장 안명국동무는 관리국을 꾸리는데 쓰려고 남겨두었던 세멘트전량을 고스란히 대학에 보내주게 하였다.

이것이 관리국의 일군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허철만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분발하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수지타산을 하지 말고 투자하자!

그것이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와 올해에만 해도 도안의 대학, 기능공학교, 원산중등학원과 애육원, 육아원을 비롯한 단위들에 후원사업을 진행한 실례는 많다. 교육사업에 필요한 설비들과 건설용자재, 생활필수품 그리고 놀이감에 이르기까지 후대들을 위한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제일 좋은것으로 보내주었다.

수지타산이 없는 교육투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계산법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전경서

교육사업을 자기 몫으로 틀어쥘 때

◇ 동흥산구역당위원회 사업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교육사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동흥산구역은 교육환경과 조건에서나 학생들의 실력에서 도적으로 손꼽히는 단위이다. 3중영예의 붉은기 새별고급중학교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학교가 영예의 붉은기학교칭호를 수여받았으며 모범교육구역으로서의 면모가 날로 새로와지고있다.

그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구역당책임비서 리달수동무가 모범교육구역칭호쟁취를 위한 작전을 펼치면서 절감한것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력량이 부족한것이였다. 그는 그 원인을 교육사업은 구역당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 일군들의 몫으로만 여기는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에서 찾았다.

구역당책임일군은 이 굳어진 관점을 깨는것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개선의 첫걸음을 뗐다. 집행위원들은 물론이고 구역당위원회 부부장, 구역인민위원회 부장이상 일군들에게 학교, 유치원을 하나씩 고정담당시키게 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가 담당한 단위들에 정상적으로 나가 교수참관을 하는 과정에 걸린 문제를 료해하여 풀어주는것을 제도화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당책임일군자신이 령도업적단위인 새별고급중학교를 맡아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언제인가 새별고급중학교 3학년 3반에 대한 교수참관을 진행하면서 교원과 학생들의 교감이 잘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분석해주고 대책을 세워준것이 좋은 실례이다.

책임일군의 실천적모범을 따라 구역당위원회 비서 리성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교육자의 립장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에 품을 들였다.

구역당위원회는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구역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부민고급중학교건설을 실례들어보자. 지난해 봄 긴급협의회포치를 받고 구역안의 여러 단위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모여온 곳은 뜻밖에도 부민고급중학교 운동장이였다. 골조만 선 2층짜리 학교건설장에서 협의회가 열렸다. 학교건설을 새 학기전으로 끝낼데 대한 문제가 회의안건이였다. 사실 어느 단위라 할것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던 때라 일부 일군들의 얼굴에는 난감한 기색이 어리였다.

책임비서는 말하였다. 물론 구역앞에 나선 일감은 어느것이나 중요하다. 하지만 확고히 앞세워야 할것이 있다. 교육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교육사업은 민족의 흥망과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생산은 오늘 못하면 래일 봉창할수 있지만 봉창할수 없는것이 바로 교육사업이다.

협의회를 통하여 일군들을 각성시킨 책임일군은 교사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총동원된 가운데 학교건설은 새 학기전으로 끝났다.

교육사업에 대한 구역당일군들의 옳은 관점을 보여주는 실례들은 많다. 지난해 초겨울 구역안의 전체 교육자들에게 솜옷을 공급해준 사실,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구역도서관에 수십대의 콤퓨터와 발동발전기를 해결해준 사실, 동흥산고급중학교 화학실험실을 구역당위원회가 맡아 도적인 본보기로 꾸리고 수십년간 교단을 량심적으로 지켜온 나이많은 실험교원을 적극 내세워준 사실, 부부교육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돌보아주는것은 물론이고 지난해에만도 여러세대의 교원살림집을 해결해준 사실…

구역이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쟁취하게 된것도, 최근년간 이룩한 성과도 교육사업에 대한 책임일군들의 옳은 관점과 완강한 사업기풍의 결과라는 구역당위원회 비서 유순화동무의 말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옳은 관점, 이것이 바로 교육사업성과의 대문을 여는 근본열쇠라는것을 동흥산구역당위원회의 사업은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어길수 없는 일과

전천군당위원회 일군들

19시부터 20시까지, 이것은 전천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학생들의 예술공연을 보아주는 시간이다.

군의 전반사업을 돌보는 바쁜 속에서도 어김없이 지켜지는 이 류다른 일과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초였다. 광복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나서는 군당책임비서 김영관동무의 마음은 개운하지 못하였다. 산골마을아이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어준 궁전건물이 퍽 낡았던것이다. 예술소조원들의 의상도 오래전의것이였고 수십년전에 생산된 악기들의 음색도 밝지 못하였다.

아이들을 위해 마을마다에 새 놀이터를 꾸려주고 교육조건도 개선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자책감에 얼굴을 들수 없었다.

다음날에 진행된 해당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그는 말하였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일군들이 있다. 더우기 우리 군 학생들의 가야금병창과 경음악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수십차례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종목들이 아닌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 사업이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정치적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자.

절절하게 울리는 목소리는 참가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협의회에서는 궁전건물을 개건하는 문제, 예술소조원들의 의상과 악기들을 새로 마련하는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특히 이 사업에 군당위원회의 모든 부서, 모든 일군들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그 자리에서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를 군당책임일군들의 공연지도시간으로 정하였다.

학생들의 밝은 웃음을 지키고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한 사업이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힘있게 벌어졌다.

군당책임일군들은 궁전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새 의상과 7종에 60여점의 악기들을 마련하는데 자금을 아끼지 않았다. 매일 저녁 궁전에 나가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책을 세웠다.

목금독주를 위한 경음악연주를 지도하는 과정에 군당책임비서는 수십년전에 생산된 목금이 자기 음정을 내지 못하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던 경음악을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고 하면서 목금의 음정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지체없이 세웠다.

목금제작에 알맞는 나무를 해결하기 위해 일군들이 걸은 길은 얼마인지 모른다. 마침내 수십년 묵은 나무를 찾아낸 그들은 전문가들의 방조를 받으며 목금의 음정을 끝내 되살려내였다.

지난해 3월 8일 새롭게 형상된 학생들의 첫 공연이 군에 있는 소년궁전무대에서 펼쳐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근 100차례의 공연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예술소조원들의 가야금병창과 학무고급중학교 학생들의 경음악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을 본 도와 중앙의 일군들과 혁명의 천리길답사자들의 반영도 대단하였다.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높아질수록 당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도 높아졌다.

19시부터 20시까지, 이것은 단순히 군당책임일군들이 학생들의 공연을 지도하는 실무적인 시간만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미래사랑의 력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는 절절한 그리움의 시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후대관을 더욱 활짝 꽃피워갈 불타는 맹세의 시간이다.

본사기자

혁명사적사업은 최대의 중대사이다

룡성구역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혁명사적사업이 당의 방침과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사적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한 혁명사적사업은 모든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최대의 중대사이다.

최근 룡성구역당위원회에서는 어은혁명사적관을 비롯하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의 혁명사적사업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확고히 틀어쥔 선차적인 문제

창조와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오늘 각급 당조직들앞에 나선 과업은 참으로 많다. 제기되는 문제가 많고 해야 할 일감이 방대하다 해도 언제나 선차적인 문제로 틀어쥐여야 할 사업이 혁명사적사업이다.

룡성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9년전 구역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되여온 신경원동무가 제일먼저 찾은 단위가 어은혁명사적관이다. 40여일동안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군사야영을 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적관을 돌아볼수록 선군령장의 병사시절이 수놓아진 력사의 땅을 더욱 빛내여갈 결심이 굳세여졌다.

그는 어은혁명사적관을 비롯하여 구역안의 령도업적단위들의 사적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이 단위들에 정상적으로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군 하였다.

그러던 그가 자기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고 분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을 때였다. 혁명전적지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그의 뇌리를 쳤다.

혁명전통교양, 혁명사적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그 숭고한 뜻에 비추어 자기 사업을 돌이켜볼수록 자책이 컸다. 혁명사적사업에 관심을 돌린다고 하였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높이에 비해볼 때 거리가 멀었던것이다.

며칠후 구역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혁명사적부문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에서 책임비서는 어은혁명사적관을 고정담당하여 사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풀어나갈 결심을 터놓았다.

사적관의 사업을 도와주는것을 당적분공으로 받아안은 그는 매일같이 사적관을 찾았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깊은 밤에도 찾았다. 멀리에 출장갔다가 돌아오는 걸음으로 제일먼저 찾는 단위도 사적관이였다. 그는 사적관의 내부와 외부를 돌아보면서 사적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였다.

어은동일대의 산불방지대책을 세울 때에도 그는 경사급한 수십리 산길을 앞장에서 오르내리며 산불감시초소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정해주고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적지 않은 일군들이 혁명사적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은 하면서도 최우선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실천에 구현하지 못하고있었다.

령군봉으로 뻗은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자재문제때문에 공사를 당장 시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책임비서는 이것을 실무적인 문제로 볼수 없었다.

(도로공사를 통하여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세워주자.)

이렇게 생각한 구역당책임비서는 일군들에게 말하였다.

혁명사적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물론 애로가 있지만 우리 일군들이 한몸을 내댄다면 해결하지 못할것이 무엇이겠는가. 문제는 사상관점에 있다. …

그는 어느 한 단위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려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되여 다음날부터 공사가 진행되게 되였으며 짧은 기간에 번듯한 도로가 펼쳐지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가 조직한 구역안의 당, 행정일군들의 어은혁명사적관참관도 사적사업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세워주는 계기로 되였다.

사적관을 돌아보고 령군봉에 오른 당, 행정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야영을 지도하시던 나날에 몸소 읊으신 시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를 깊이 새기면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열, 백가지 과업이 제기된다 하여도 혁명사적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다는 관점, 사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립장이 구역안의 모든 당책임일군들의 심장에 깊이 새겨졌다.

구역당위원회가 혁명사적사업을 최우선적인 문제로 틀어쥐고나가는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 신념이 더욱 억세여지게 되였다.

실천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혁명사적사업에서 나서는 원칙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유일사상체계의 원칙,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혁명사적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혁명사적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언제인가 구역당책임일군이 어은혁명사적관의 3호실을 돌아볼 때였다. 3벽면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야영기간에 읽으신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그런데 그 도서들을 보실 때 리용하신 학생용책상과 의자는 2벽면앞에 놓여있었다. 알아보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신 편수책상이 2벽면앞에 전시되여있기때문에 그옆에 놓았다는것이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읽으신 도서들이 전시된 3벽면앞에 학생용책상과 의자를 놓는것이 더 교양적의의가 있지 않는가, 또 그렇게 사적물을 전시하는것이 과학성의 원칙에도 맞는것이라는데 대하여 일깨워주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적물을 전시하여도 철저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원칙에 따라 전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구역당책임일군에게는 사적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것도 아니다. 전문일군들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까지 즉시에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는 예리한 안목은 저절로 생겨난것이 아니다.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체득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정열을 바치였는가를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제기되는 문제를 당의 의도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가는것, 이것이 구역당위원회가 사적사업에서 내세운 목표이고 기준이다.

하나의 사적물, 한그루의 나무를 보아도 어떻게 하면 당의 의도에 맞고 교양사업에 더 잘 이바지되도록 할것인가 하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다.

혁명적구호나무들이 있던 자리에 표식판을 새로 만들어세우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있던 자재를 가지고 표식판을 만들자고 하였다.

하지만 구역당책임일군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자금도 로력도 절약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량심에 생기는 흔적은 영원히 지울수 없다. 품이 들어도 최상의 수준에서 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여 표식판을 화강석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세우기 위한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게 되였다.

사적물들의 해설판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것도, 참관자들이 감상문을 쓰는 방이 교양장소로 훌륭히 꾸려지고 사적관주변에 새 품종의 잔디들이 보기 좋게 자라게 된것도 당의 의도에 사색과 실천의 기준을 정하고 아글타글 애쓰는 구역당일군들의 불타는 충정의 결과이다.

지금 룡성구역에서는 어은혁명사적관을 비롯하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위대성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조직들이 혁명사적사업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할 때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룡성구역당위원회 사업을 통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김승표

버섯생산에 힘을 넣어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가고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회고록학습을 짜고들어

우시군 가하리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학습을 짜고들어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얼마전 리당위원회의 일군은 3대혁명붉은기 제2작업반에서 작업의 쉴참에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3권에 수록된 **《천교령의 눈보라》**의 내용을 가지고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피어린 투쟁속에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리당일군의 해설은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알곡증산으로 우리 당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게 하였다.

한편 제1작업반당세포에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제7권 **《오중흡과 7련대》**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령관동지의 안녕부터 생각하고 온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여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오중흡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적극 본받아 쌀로써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최창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게 한 로력조직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일군들이 뜻깊은 올해의 농사를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당면한 영농전투를 작전하고 전개하여 성과를 높여나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앞질러가며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영농작업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는것이다.

로력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고있는 사실을 놓고보자.

농장일군들이 모내기전투를 조직하면서 중시한것은 한 논배미의 모내기를 하루동안에 끝내는 문제였다. 비료주기를 비롯한 모든 비배관리를 논배미별로 해야 하였기때문이다. 농장의 논은 모두 기계화포전으로 되여있어 한 논배미의 면적이 대체로 1 000평이상 되였다. 그래서 포전담당책임제에 따라 한 사람이 자기가 담당한 논배미의 모내기를 끝내자면 여러날이 걸려야 하였다. 이렇게 되면 한 논배미안에서도 모를 낸 날자가 각이하여 층하가 생겼고 결국 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지 못하여 정보당 소출을 떨어뜨릴수 있었던것이다.

모든 사업을 새롭게 착상하고 혁신적으로 전개하여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당의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할수 있다.

이것을 명심한 관리위원장 서경심동무는 분조의 단합된 힘으로 한 논배미씩 모내기를 집중적으로 끝내기 위한 방도를 내놓고 실천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모든 분조에서 논배미별로 모내기차례를 정하고 로력조직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분조장들이 먼저 논배미별모내기를 하루동안에 끝낼수 있게 작업조들을 다시 편성하였으며 조별모내기일정계획도 세웠다. 그리고 매 논배미에 낼 모의 품종과 평당 포기수, 포기당 대수를 확정하였다.

또한 논배미를 옮길 때마다 포전담당자가 작업조장이 되여 모내기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모두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주인답게 일할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였다. 여기에는 하루작업실적과 함께 평당 포기수, 포기당 대수, 렬맞추기 등 모내기의 질보장에서 나서는 모든 기술적요구들이 조항별로 들어있었다. 그리고 분조의 로력일평가사업은 논배미별로 분조장과 평가성원들, 해당 조장들이 작업수행정형을 따져본데 기초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은을 내여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고 비배관리성과를 담보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마련해주었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하여 영농작업의 질을 담보하자면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일정계획대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할수 있게 작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시기성을 요구하고 품이 많이 드는 영농작업들을 적기에 와닥닥 해제껴야 알곡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수 있기때문이다.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긴급히 제기되는 그 어떤 영농작업도 질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최악의 가물을 막기 위한 전투는 품이 많이 드는 영농작업의 하나였다.

매일 로력이 총집중되여 종일 뛰여다니며 우물, 졸짱, 개울과 하천의 물을 날라야 포기마다 충분히 줄수 있었던것이다. 이 사업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근기있게 내밀자면 김매기를 비롯한 비배관리일정계획을 바로 수행할수 없었다. 결국 물주기와 김매기를 동시에 내밀자면 몇배의 로력이 더 있어야 해낼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내밀면 막혔던 길도 열리고 없던것도 생기는 법이다.

일군들은 대담하게 국가의 전기를 쓰지 않고 물을 보장할수 있는 양수체계를 세울것을 결심하고 하천에 보막이를 하도록 하였다. 지구별로 여러대의 양수기를 설치하고 발동발전기까지 갖추어주어 물길을 따라 포전으로 관개수가 흘러들게 하였다.

또한 50여대의 소형양수기와 비닐관을 확보하여 모든 분조들에 보장해줌으로써 물원천이 있는 임의의 곳에서 포전마다 물을 정상적으로 댈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물보장대책을 세워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도록 함으로써 일정계획대로 김매기와 비배관리도 질적으로 해나가게 되였던것이다.

사색은 열정을 불러일으켜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힘을 낳게 하는것이다.

일군들은 살초제치기도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할수 있게 앞질러가며 실속있는 대책을 세웠다. 이때 잘한것이 포전별살초제치기를 하루동안에 끝내도록 한것이다. 살초제치기는 포전별로 일기조건이 가장 좋은 날을 골라 집중적으로 해야 그 효과를 크게 볼수 있다. 이 문제에 모를 박은 일군들은 분무기로 하루 살초제를 칠수 있는 면적을 따져보고 3정보당 1대씩 차례지도록 그대수를 늘이였다. 또한 기능공들을 보충하고 여러차례의 기술전습을 진행하여 그들이 살초제치기에 정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살초제치기성과도 높일수 있게 되였다.

당의 뜻대로 모든 농사일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기 위하여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영농작업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현장지도에 힘을 넣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정영철

불경두둑재배방법을 실정에 맞게

박천군 단산협동농장에서

박천군 단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불경두둑재배방법을 80%이상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목표밑에 떨쳐나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일군들이 과학농법도입의 적극적인 발기자,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불경두둑재배방법으로 모내기성과를 높여나가고있는 농장일군들의 일본새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처음 불경재배를 시작할 때 농장일군들이 왼심을 많이 쓴것은 모내기였다. 농장은 관개체계에서 제일 말단지역에 있으며 포전은 대부분이 간석지논들이다. 그래서 모든 작업반들에서 한해농사를 끝낸 다음부터는 포전마다 물잡이를 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잡아놓은 물량에 따라 모내기성과가 좌우되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이런 포전들에 논갈이와 써레치기를 하지 않고 모내기를 하니 속도와 질이 보장되지 않았다. 물을 잡아놓은 논에 모를 내면 결층에는 감탕이 깔려있어 조금만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꽂은 모들이 쉽게 뽑히여 물면에 떴다.

김잡이도 문제였다. 물이 찬 포전들에 살초제를 치자면 많은 량이 필요하였고 김매기에도 품이 들었지만 그 효과를 크게 볼수 없었다. 반대로 물을 잡지 못한 마른논의 결층흙은 두드리면 땅땅 소리가 날 정도로 굳어서 모를 내기가 헐치 않았다. 그래서 영농자재를 많이 리용하고 물부족을 느끼면서라도 논갈이를 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편이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것은 토양관리와 재배방법을 다같이 혁신하지 않고서는 불경재배의 성과를 절대로 담보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당정책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관철해나가야 그 생활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관리위원장 정문경동무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과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색을 거듭하며 여러 작업반들에서 재배시험을 하는 과정에 높은 소출을 낼수 있는 합리적인 영농방법들을 완성하였다.

성과의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고 힘은 군중에게 있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지난해 정보당 2t이상의 소출을 더 낸 제11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기술지도에 힘을 넣었다.

첫째로 토양관리를 빈틈없이 해놓고 모내기를 시작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모든 포전에 모판처럼 일정한 너비의 두둑을 만들고 그 사이에 물골을 째도록 하였다. 그리고 살초제를 친 두둑우에 모를 내고 물골을 따라가며 물관리를 하게 하였다.

결과 모든 작업반들에서 그 효과성이 크게 나타났다.

우선 많은 원가를 줄이였다. 종전보다 정보당 20%정도의 물과 연유, 50%의 로력공수와 적은 량의 살초제로 적기에 토양관리를 와닥닥 할수 있었다.

초보적으로 타산해본데 의하면 전면적에 칠 살초제를 장만하는 밑천은 종전에 각종 영농자재를 확보하는데 들던것보다 훨씬 적었다.

다음으로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지력을 높이였다. 땅을 갈지 않고 두둑을 지으니 포전의 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존되고 미생물 등이 왕성하게 증식되여 토양결층의 비옥도가 높아졌다. 김을 자래우다가 모내기 열흘전에 두둑우에 살초제를 분무하여 말끔히 잡았는데 그것은 그대로 거름으로 되였다.

결국 땅속산소조건이 좋아져 뿌리활성을 높여줄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 이삭여문률이 높아지게 되였다. 또한 물을 적게 쓰면서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할수 있었다. 포전마다 두둑을 만드니 결층흙은 부실부실하여 모내기전에 물을 약간 대고도 모를 손쉽게 빨리 낼수 있었다.

둘째로 모내기방법을 혁신하도록 하였다. 논벼품종의 특성에 맞게 적기를 바로 정하였다. 그리고 영양단지모, 속성모를 벼그루터기옆에 내도록 하였다.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불경두둑재배방법을 완강하게 틀어쥐고 많은 면적에 받아들이며 신심에 넘쳐 모내기성과를 높여나가고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본사기자

농사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곡산군 서촌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넓은 이랑재배방법을 받아들여

함주군 련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함주군 련포협동농장의 일군들이 올해농사작전을 세우면서 중시한 문제의 하나가 당의 뜻대로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여 당창건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대풍을 마련하는것이였다.

농장일군들은 이 문제를 놓고 지난해농사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시험적으로 10여정보의 논에 물절약형농법의 하나인 이랑재배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결과 적은 물을 가지고도 능히 가물을 극복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 알곡증수의 방도를 이랑재배를 받아들이는데서 찾고 그 면적을 늘일 높은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난문제가 있었다. 농장의 일부 토양이 모래메흙땅, 모래땅으로 되여있어 이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것이였다. 농장의 실정에 맞는 이랑재배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관리위원장 문용철동무는 일군들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농장의 일부 토양이 모래성분이 많은 조건에서 이랑이 잘 지어지게 하자면 넓게 이랑을 짓고 모내기를 하여야 하였다.

사색을 거듭하던 끝에 그들은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였다.

이랑을 70㎝로 넓게 지은 후 가운데 30㎝간격을 두고 이랑량쪽에 20㎝간격으로 벼모를 네줄 심도록 하였다. 이때 이랑사이간격을 30㎝로 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으로 이랑재배를 받아들여보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선 이랑이 제대로 지어지는것은 물론 웃면의 수평이 잘 보장되여 벼모들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없어지게 되였다. 그리고 두둑재배할 때보다 물이 이랑에 빨리 스며들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뿌리썩음병을 발생시킬수 있는 류화수소가 빨리 빠지기때문에 뿌리발육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랑이 넓어진데 맞게 두가지 문제에 힘을 넣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우선 모래가 많은 조건에서 이랑웃부분의 수평을 보장하고 다짐을 잘하도록 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농장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업반들을 담당하고 나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어나갔다.

당의 뜻을 받들고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사색으로 이랑재배방법을 농장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 농장의 올해농사가 기대된다.

김강철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은을 내는 미립분무기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리용하고있는 미립분무기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제작원가가 적은 이 분무기는 여러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

우선 많은 물을 절약할수 있어 좋다. 이 분무기의 물소비량은 정보당 5L정도이다. 따라서 일반분무기를 리용할 때보다 잎덧비료주기에 필요한 물을 120~140배 절약할수 있다.

다음으로 좋은 점은 비료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벼잎의 웃면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털들이 있다. 그런데 일반분무기로 물이나 비료용액을 모판이나 포전에 심은 벼모들에 뿌려주면 적지 않은 물방울이 벼잎에 흡착되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된다. 그러나 미립분무기를 리용하면 이런 현상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으므로 적은 량의 물과 비료를 가지고서도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다만 해비침률이 지내 높을 때 이 분무기를 리용하면 물이나 비료용액이 벼잎에 닿기 전에 증발될수 있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흐린 날이나 해비침률이 낮은 시간에 이 분무기로 잎덧비료와 물주기를 진행하여야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고 한다.

또한 누구나 한번 보면 그 동작원리를 인차 파악할수 있으므로 어디서나 쉽게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이 분무기는 직경이 8~10㎝정도이고 변두리가 톱날처럼 된 얇은 원형철판을 소형직류전동기에 련결시키는 방법으로 분무장치부분을 완성하였다. 철판이 회전할 때 철판에 떨어진 물은 톱날처럼 생긴 날개에 맞아 안개처럼 분산되면서 뿌려지게 된다. 이때 분무대에 설치한 조절변으로 물판의 직경을 변화시키면서 철판에 떨어지는 물량을 조절하게 되여있다.

농장에서는 이 분무기를 모기르기때부터 계속 리용하고있는데 다루기가 편리하고 효과성이 높아 농장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많은 물과 비료를 절약하면서도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올해의 논벼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였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성과는 황옥금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이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해 애쓴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특히 이들은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분무기제작사업을 다그쳐 끝내기 위해 앞채를 메고 나섰다. 모든 분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분무기를 제작완성할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주었고 필요한 유휴자재들을 마련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알곡증산의 자랑찬 성과를 안고 떳떳이 들어설 각오로 분발해나선 농장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분무기제작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결과 분조마다 한대의 미립분무기를 갖추어놓고 모기르기뿐아니라 모를 낸 후에도 잎덧비료주기와 물주기, 농약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게 되였다.

지금 당의 뜻대로 논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생육단계별비료주기와 농약치기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은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승리의 신심에 넘쳐 당면한 영농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4포기당 한줌씩의 흙보산비료를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제4작업반 2분조에 가면 류다른 흙보산비료무지들이 눈길을 끈다.

포전에 낸 벼모들의 초기생육보장에 리용할 비료들이다. 진거름 등을 섞어서 만든 질좋은 이 비료는 지난해 겨울에 생산한것들이다.

분조장 김선남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해를 넘겨 생산한 흙보산비료속에는 부식질을 비롯하여 논벼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들의 함량이 높다고 한다. 결국 화학비료에 못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분조에서는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생산한 흙보산비료를 4포기당 한줌씩 땅을 파고 묻어주어 논벼의 잎색을 가을까지 유지하군 하였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이것을 리용하여 논벼의 초기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하였고 농장적으로 제일 많은 알곡을 생산하였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본사기자

조선소년단창립 69돐경축

제53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 진행

조선소년단창립 69돐경축 제53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이 6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평양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장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준비》로 시작된 공연은 희망찬 미래와 아름다운 꿈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강성조선의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밝고 행복넘친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출연자들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시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어은금과 노래 《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 하모니카독주 《장군님과 아이들》 등에 담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실화와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민족기악과 노래련곡 《행복의 꽃대문》, 무용 《웃음넘친 스키장에서》, 민요제창 《내 나라는 아이들 세상이야》를 비롯한 종목들은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만복을 누려가는 행복동이들의 명랑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항일아동단의 고귀한 넋을 이어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로 억세게 준비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려는 학생소년들의 결의를 반영한 결의시 《심장에 안고 살자 아동단 그 신념을》, 무용 《애기나무 심어요》, 《우리도 한몫》 등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종장 《원수님 축복안고 밝은 미래로》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속에 희망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펴고 강성조선을 빛내이는 미래의 주인공들로 꿋꿋이 자라날 학생소년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조선소년단창립 69돐을

각지 소년단원들 뜻깊게 경축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이 세상 만복을 누리며 선군혁명의 역군들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조선소년단창립 69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뜻깊은 6.6절을 맞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시고 미래사랑의 새 전설을 끝없이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끓어넘치였다.

전체 소년단원들은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조선소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나라의 최북단 두메산골과 바다멀리 외진 섬, 분계연선마을에 이르기까지 소년단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을 전하며 새 세대들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조선소년단창립 69돐을 맞으며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는 소년단련합단체대회들이 있었다.

련합단체대회들에서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속에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라고있는 자기들의 영예와 행복에 대해 긍지높이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높이 받들고 언제 어디서나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강성번영할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준비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함경남도, 황해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 조선소년단창립절을 경축하는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들이 있었다.

공연들에서 출연자들은 《장군님과 아이들》, 《고마운 우리 해님》,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자기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두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자라나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창덕학교, 중구역 류성초급중학교를 비롯한 각지 학교들에서는 소년단원들의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있었다.

운동장이 들썩하게 응원을 하며 서로 승부를 겨루는 다채로운 경기들은 뜻깊은 명절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륜안에서 공안고달리기, 사람찾기, 바줄당기기 등 특색있는 종목들을 펼치는 소년단원들의 명랑하고 씩씩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직원들과 학부형들, 각계층 근로자들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한몸바쳐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뜻깊은 명절을 크나큰 환희속에 보낸 전체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따라 소년단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우리 당의 참된 아들딸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준비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이 소년단창립절을 맞는 소년단원들을 축하해주었다.

—사리원시에서—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7일 오전 룡남산체육단과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단사이에 롱구 1급 남자경기가 청춘거리롱구경기관에서 벌어진다.

이날 륙해운성체육단 남, 녀선수들의 요트경기가 오후 미림갑문상류에서 있게 된다.

한편 축구 1급경기도 계속 진행된다.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7일 남자 4.25:경공업성
녀자 압록강:리명수
8일 남자 소백수:리명수
압록강:평 양
9일 남자 선 봉:홰 불
초 병:기관차
녀자 내고향:소백수
10일 남자 4.25:리명수
경공업성:평 양
11일 남자 소백수:압록강
12일 남자 기관차:월미도
선 봉:초 병
녀자 평 양:내고향
13일 남자 4.25:평 양
리명수:압록강

【조선중앙통신】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에서 공화국기를 빛내인 미더운 청년대학생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올해 《코드쉐프》경연에서 3련승을 쟁취

지금 인터네트상에서는 세계의 프로그람작성자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인디아에서 주최하는 《코드쉐프》경연은 세계 3대 1부류에 속하는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들중의 하나로서 240시간동안에 제시된 10개의 문제에 한하여 풀이결과의 정확성정도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경연이다. 수십개 나라와 지역에서 수천명의 우수한 프로그람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이 경연의 규모만 놓고보아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높은가를 가늠해볼수 있다.

이런 경연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번이나 련속 1등을 쟁취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5월에 또다시 우승함으로써 결국 3련승을 기록하게 되였다.

하여 이들은 주체교육을 받는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뛰여난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인터네트상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련이어 자랑스럽게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그람기술은 투자가 적게 들고 우리 사람들이 총명하기때문에 잘하면 짧은 시일에 세계적수준을 돌파할수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코드쉐프》경연에서의 우승이 그리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여러차례나 1등을 쟁취하여 우승의 꿈을 꾸던 다른 나라의 권위있는 프로그람전문가들을 보기 좋게 주저앉혔었다.

조선의 프로그람강자들에 대하여 알고싶어 수많은 기사들이 인터네트에 오르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생들은 과연 어떤 정신력을 안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무대에 뛰여들어 계속 우승하군 하는가.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나가는데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선두마차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이들의 심장마다에 끝없는 창조와 열정의 불길이 되여 세차게 타번지고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대학교무부 지도교원인 길철림동무와 우수한 실력을 갖춘 콤퓨터교육학과의 정철룡, 리명진동무들이 프로그람소조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지도교원들은 자체로 프로그람직결심사체계를 개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소조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소조활동이 프로그람작성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지향한 높은 목표밑에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되게 하였다.

올해 3월경연은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였다. 경연에는 세계의 77개 나라와 지역에서 6 578명의 프로그람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경연에 참가한 정보과학기술대학 류성철, 자동화공학부 문소민학생들은 우승의 성과로 당창건 일흔돐을 빛내일 신심을 안고 첫시작부터 긴장하게 두뇌전을 벌리였다. 출제된 마지막도전문제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차원평면에서 N개의 점을 구하는것이였다.

경연참가자들의 대다수가 이 문제를 순수 수학적으로만 풀려고 접어들 때 류성철학생은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튐성법칙을 재치있게 적용하면서 알고리듬을 작성하였다. 하기에 경연이 끝날 때까지 다른 나라 경연참가자들이 제출한 프로그람들은 류성철학생이 처음에 제출한 프로그람수준에도 미처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경연에서 풀이를 갱신할수 있는 회수는 500회이다. 다른 나라 경연참가자들이 자기에게 차례진 이 기회를 최대한 리용하고도 모자라 아쉬워할 때 류성철학생은 불과 200회의 갱신으로 목표값에 접근하여 최고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문소민학생도 250회의 갱신으로 다음가는 점수를 획득하고 경연에서 2등을 하였다. 하여 류성철학생은 단연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다.

4월경연에 나선 문소민학생은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러 승리의 보고를 삼가 올렸다.

5월에 진행된 경연은 특별히 힘에 부친 경연이였다.

대체로 5월은 인터네트상에서 많은 프로그람경연들이 진행된다. 이 경연들에 참가하면서도 《코드쉐프》경연준비를 동시에 내밀자니 절대적으로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였다. 이 귀중한 시간을 쟁취하기 위하여 지도교원들과 소조원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대학책임일군들은 그들에게 자주 찾아와 꼭 1등을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자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군 하였다.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5월《코드쉐프》경연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81개 나라와 지역에서 6 003명의 프로그람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3, 4월경연에서 우리 나라에 패한 많은 나라의 프로그람전문가들이 5월경연에서는 기어이 1등을 할 야심을 안고 이번 경연에 참가하였다. 하여 경연은 여느때보다 더욱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이 경연에 참가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류성철학생은 빠른 시일안에 아홉문제를 다 풀어냄으로써 1등을 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11일에는 마지막도전문제를 거의나 완성단계에로 이끌어갔다.

그런데 마지막단계에 와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17일 새벽에는 3등으로 떨어졌던것이였다.

(기어이 1등을 쟁취하여 우리의 공화국기를 빛내이리라!)

류성철학생은 도전문제풀이를 갱신하기 위한 결사의 전투를 벌려 하루동안에 새로운 알고리듬을 착상하여 심사측의 의도대로 목표값으로 바싹 접근시켰다. 재심사가 끝난 후 결과가 다시 발표되였는데 류성철학생은 또다시 영예의 1등을 쟁취하였다.

이로써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은 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어머니당에 드리는 세계적인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에서의 3련승이라는 자랑찬 열매를 마련하였다.

이들의 앞에는 아직 개척해나가야 할 미지의 세계, 넘기 어려운 첨단과학기술의 봉우리들이 수많이 놓여있다.

하지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일념에 넘쳐 분발하고 또 분발해나섰다.

영원한 태양의 빛발아래 더욱 강대해질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본사기자 김명훈

열성독자들에 대한 자랑이야기

인민대학습당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책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말없는 스승입니다.》

얼마전 인민대학습당을 찾았던 우리는 우연히 곁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였다.

이곳 열람실 실장들인 오혜원, 리춘희동무들이 주고받는 열성독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와 만난 오혜원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매일이다싶이 찾아오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오면 〈우리 열성독자동지가 또 오셨구만요.〉라고 하는것이 례사로운 인사말로 되였답니다.》

우리 열성독자,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식의 탑을 부단히 높이 쌓아가는 독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담긴 뜻깊은 부름이였다. 우리는 이렇듯 사서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열성독자들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그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열성독자는 오혜원동무가 자랑한 최명일동무였다. 그는 평양연극영화대학 문학학부에서 교원으로 일하고있었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난 그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보다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아직 멀었습니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한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백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도 그럴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인 그에게 있어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여기에서 제일 큰 도움을 준것이 바로 책이였다.

책속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보다 원만한 대답을 줄수 있는 폭넓은 지식도, 교과서집필과 강의안작성에 필요한 자료들도 모두 들어있었다. 하기에 그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여 인민대학습당을 찾군 했다.

그때마다 언제면 이 많은 책들을 다 볼수 있을가 하는 생각과 함께 보다 높은 독서목표를 세우군 하였다.

《책은 저격무기에 비유하면 예비탄창이나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아무 일에서나 막히지 않습니다.》

지성미가 풍겨오는 그의 이야기는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책은 풍부한 지식을 주는 말없는 스승, 더없이 귀중한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라는 진리를 더욱 깊이 새기며 우리는 계속하여 리춘희동무가 소개한 열성독자도 만나보았다.

국가나노기술국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박성철동무의 이야기는 참으로 교훈적이였다.

어느 한 연구과제를 맡았을 때였다. 며칠동안 고심한 끝에 신통한 방도가 떠올라 그는 한달음에 인민대학습당으로 달려갔다. 해당 부문에 대한 도서들을 한가득 펼쳐놓고 그 가능성여부를 확인해보던 그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자기의 착상이 이미전에 나온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때의 실망감이란 이루 다 형언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실망감은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시대에 사는 연구사로서의 본분과 자각을 다시금 가다듬게 해주었다. 이때부터 책은 그에게서 떼여놓을수 없는 더욱 귀중한 길동무로, 진정한 방조자로 되였으며 인민대학습당으로 향한 발걸음은 더 잦아지게 되였다.

《책을 보고는 꼭 그 내용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산지식으로 더욱 공고히 될수 있습니다.》

이들외에도 이곳 사서들이 자랑하는 열성독자들은 정말 많았다. 우리는 돋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의 머리속에 축적되여있는 지식은 제한되여있는것만큼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고, 책읽기야말로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는 정신단련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의 참뜻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책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빨라지고 책을 멀리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떠지게 된다는 시대적사명감과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끓이는 열성독자들이 나날이 늘어난다고 하는 사서들의 자랑이야기를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더욱 젊어지고 강해질 내 조국의 밝은 래일이 그 자랑속에 뜨겁게 어려있었기때문이였다.

조향미

벽성군 원평협동농장에서

중간총화뒤끝에 벌어진 체육경기

얼마전 모내기전투로 들끓던 벽성군 원평협동농장에서는 이채로운 체육경기가 벌어졌다. 농장에서 모내기중간총화뒤끝에 계획적으로 조직한 체육경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군중문화사업과 군중체육활동을 적극 벌려 어디에 가나 흥성거리고 사람들이 혁명적락관과 신심에 넘쳐 일하고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날 체육경기는 농장관리일군들과 작업반장들사이의 배구경기에 이어 분조장들의 로력일평가능력을 보여주는 경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달리기도 잘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어느 분조장이 더 빨리 푸는가 하는데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경기는 농장원들과 그 가족들의 드높은 응원열기로 하여 더욱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광서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이 이날에 체육경기를 조직한 목적이 있다.

사실 중간총화를 진행하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농장의 모내기실적은 시원치 않았다. 불리한 농사조건이 결코 원인으로 될수는 없었다. 이곳 일군들은 농사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지 못한 자신들의 일본새에서 주되는 원인을 찾았다. 하여 모내기중간총화를 계기로 하여 농장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조직하자는 안이 나오게 되였다.

농장일군들은 체육경기가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발동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면서 모든 초급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한계단 높이는데로 지향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기종목들도 특색있는것들로 선정하였다. 결과 농장관리일군들과 작업반장들사이의 배구경기가 조직되였고 분조장들의 로력일평가능력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류다른 경기도 펼쳐지게 되였던것이다.

농장일군들의 의도는 헛되지 않았다. 체육경기가 진행된 후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열의는 비상히 높아져 모내기하루실적이 200%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까지 나오게 되였다.

더욱 좋은것은 농장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벼모들의 사름률을 최대한 높이면서도 모내기와 김매기를 동시에 밀고나갈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도 적극 창안도입되여 전투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진것이다. 하기에 그날의 체육경기가 몸도 마음도 더욱 앙양시켜준 명약으로 되였다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농장이 모내기실적에서 군적으로 앞선 단위들속에 당당히 속한것은 응당한것이다. 그러니 체육열풍이야말로 일으킬수록 좋은것이 아니겠는가.

김성민

단숨에 세계패권을!

세계청소년녀자권투선수권을 쟁취한 원은경선수의 자랑찬 성과를 두고

지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대북에서는 2015년 세계청소년 및 청년녀자권투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46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340여명의 녀자권투선수들이 참가하여 치렬한 금메달쟁탈전을 벌리였다.

13개의 몸무게급으로 나뉘여 진행된 청소년경기의 46㎏급경기에만도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로씨야, 뛰르끼예, 까자흐스딴 등의 선수 19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이 세계청소년 및 청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 참가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대회에서 원은경선수가 청소년 46㎏급경기에 출전하여 단연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원은경선수는 이번 선수권대회의 가장 나어린 선수들중의 한명이기도 하였다. 대회규정에 따라 청소년경기에는 나이가 15살, 16살인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태여난지 15년이 채 안되는 조선선수가 46㎏급경기에서 패권자로 등장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였다. 하다면 우연한 승리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체육선수후비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예선경기로부터 마지막결승경기까지 원은경선수가 치른 네차례 경기중에서 제일 치렬했던것은 로씨야선수와의 준결승경기였다.

이번 대회기간 우리 나라 선수단 단장으로 사업한 권투협회 부서기장 김정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준결승경기는 46㎏급에서 결승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단계 경기들에서 실력이 높은 상대들을 모두 이기고 준결승경기에 올라온 로씨야선수는 경기경험이 풍부한 만만치 않은 선수였다.

육체적준비가 좋고 특히 방어능력이 매우 높았다.

1회전에서는 로씨야선수가, 2회전에서는 원은경선수가 우세했다.

마지막 3회전(국제경기규정에 따라 2분 4회전으로 진행하는 청년 및 성인급경기와는 달리 청소년경기는 2분 3회전으로 진행한다.)을 앞둔 휴식시간에 김철호감독은 원은경선수가 자기의 특기를 더욱 살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선수의 정신력과 함께 육체기술전술적준비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한 감독의 능란한 경기지휘에 따라 원은경선수는 3회전에 들어가 특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기를 신심있게 운영해나갔다.

공격과 반공격수법을 잘 결합하고 2차, 3차 련속공격을 들이대면서 타격성공률을 부단히 높여 마침내 로씨야선수를 2:1로 이기였다. 그 기세로 결승경기에서도 뛰르끼예선수를 3: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누르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원은경선수의 승리로 하여 선수권대회장에 선참으로 올려퍼진 국가도 우리의 애국가였고 제일먼저 높이 오른 국기도 우리 나라의 람홍색공화국기였다. 이 드높은 긍지를 1등의 시상대에서 뜨겁게 흘리고흘린 원은경선수의 눈물이 잘 말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승리의 보고를 안고 조국에 돌아온 원은경선수를 맞이하던 그날 강서구역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 리명철동무도 감격을 금치 못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할뿐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녀자권투종목에 매우 적합한 원은경학생을 선발하여 첫걸음을 떼여주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인 승리자가 되여 돌아왔으니 정녕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삶의 보람이 가슴한가득 차고넘쳤다.

평범한 로동자가정의 딸인 원은경선수는 강서구역청소년체육학교 학생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번 선수권대회는 처음으로 출전한 국제경기였다. 하지만 아시아무대도 아닌 세계무대에서 용약 패권자로 위훈떨쳤다.

결국 한달음에 천리를 달린셈이다. 말그대로 단숨에의 기상이다.

그처럼 어린 나이에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린 무한한 행복을 금치 못하며 원은경선수가 한 말이 인상깊다.

《대회기간 나에게 필승의 의지를 더욱 북돋아준것은 관람석에서 우리 선수단성원들이 우렁차게 합창하던 시대의 명곡 〈가리라 백두산으로〉였습니다.》

진정 대회 전기간 백두산을 심장에 안고 용맹을 떨친 원은경선수였다.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구현한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이라고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으로 싸워이겼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자라는 나어린 체육선수후비들의 심장속에서도 이렇듯 절세위인께서 안겨주신 조선의 체육정신이 세차게 맥박치고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원은경선수가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지금 온 나라 청소년체육학교 학생들을 끝없이 흥분시키고있다.

원은경선수처럼 당이 펼쳐준 배움의 활무대를 더욱 기운차게 달리고달려 기어이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틀어쥐고 내 나라의 영예를 빛내이는 앞날의 체육강자로 비약하리라.

조국땅 방방곡곡이 이렇게 끓고있다. 우리의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를 뜨겁게 격동시키는 조선의 체육정신, 필승의 신심은 체육강국의 래일을 앞당겨오는 승리의 불길로 더욱 활활 타번질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원은경선수(왼쪽)의 결승경기의 한 장면

1등의 시상대에 오른 원은경선수

문수물놀이장 야외물놀이장이 문을 열었다

문수물놀이장의 야외물놀이장이 문을 열었다.

한꺼번에 수천명을 수용할수 있는 야외물놀이장은 넓은 부지면적에 아동물공원과 물결파물미끄럼대, 열림식물미끄럼대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물미끄럼대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여있는 현대적인 대중봉사기지이다.

소년단원들의 뜻깊은 명절인 6.6절에 올해의 첫 봉사를 시작한 야외물놀이장으로 찾아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저저마다 시원한 수조들에 뛰여들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다.

수조에 설치된 물총을 손에 쥐고 물싸움을 하는 장난꾸러기들,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 등 여러 물미끄럼대들을 타고내리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이채를 띠였다. 2인용물놀이기재에 몸을 싣고 야외물놀이장을 유유히 도는 사람들과 모래터배구장에서 열띤 경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

물놀이와 유희, 체육경기 등의 종합적인 시설들을 그쯘히 갖춘 야외물놀이장의 그 어디에나 희열과 랑만에 넘친 인민의 기쁨,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은 우리 인민에게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요산림병해충들의 특성과 구제방법(2)

—송충

새끼벌레가 소나무, 잣나무, 이깔나무 등의 잎을 갉아먹는다.

엄지벌레는 비교적 큰 나비이고 새끼벌레는 연한재색 또는 누런밤색이다. 한해에 한세대를 지내며 나무밑둥의 거친 껍질틈새나 나무밑둥주변의 잡풀, 락엽, 돌 등의 밑에서 새끼벌레로 겨울을 난다. 다 자란 새끼벌레의 길이는 80㎜안팎이다. 송충나비는 7월초부터 7월말사이에 나타난다.

이 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서는 소나무숲을 전망성있게 개조하여 바늘잎—넓은잎나무섞임숲으로 만들어야 한다. 섞임숲에서는 여러가지 천적들이 많이 번식하기때문에 송충이 덜 생긴다.

겨울난 송충이 나무에 오르기전에 나무밑둥주변에서 겨울을 나는 새끼벌레를 직접 잡거나 나무줄기에 송충이동차단독띠나 비닐띠를 감아주어 잡는다. 송충붉은눈알기생벌을 정보당 20만~30만마리를 기준으로 엄지벌레가 나타날 때 놓아준다. 9~10월 또는 4~5월경에 2.5%델타메트린유제 3 000~4 000배희석액을 뿌린다.

—털벌레

엄지벌레의 길이는 12㎜정도이고 몸뚱이와 날개는 흰색이다. 새끼벌레의 몸뚱이는 연한누른색이며 길이는 30㎜안팎이다.

한해에 2세대를 지내며 나무껍질틈, 벽체틈, 처마밑, 큰 돌과 바위틈, 떨어진 나무잎속에서 번데기로 겨울을 난다.

첫번째 엄지벌레는 5월 중순~6월 상순경에, 두번째 엄지벌레는 7월 중순경부터 나타나 잎뒤면에 알을 무데기로 낳는다.

첫번째 새끼벌레는 5월 하순경부터, 두번째 새끼벌레는 7월말부터 까나온다. 새끼벌레는 세번 허물을 벗을 때까지 실을 늘여 둥지를 만들고 그속에서 무리로 살면서 잎살만 갉아먹으며 다음에는 흩어져서 잎을 모조리 갉아먹는다.

이 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서는 알, 고치, 새끼벌레둥지를 제때에 불태우고 새끼벌레가 생기면 2.5%델타메트린유제 2 000~4 000배희석액이나 40%폭심유제 1 000~1 500배희석액, 50%말라티온유제 1 000배희석액을 잎에 분무한다.

—솔잎혹파리

주로 솔잎을 해친다.

새끼벌레는 솔잎밑둥에 붙고 들어가 즙액을 빨아먹으며 잎의 밑둥은 혹처럼 부풀어난다. 피해를 받은 솔잎은 작아지거나 말라죽는다.

엄지벌레는 모기와 비슷한 작은 파리이고 새끼벌레는 구데기모양으로 생겼다. 길이는 2.5~3.5㎜이다. 한해에 한세대를 지내며 새끼벌레는 땅속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엄지벌레가 되여 땅속에서 나온다.

이 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서는 겨울기간에 떨어진 솔잎과 부식토를 긁어서 불태워 겨울나는 새끼벌레를 죽여야 한다. 10~11월기간과 5~6월기간에 땅걸면에 4%클로로포스가루약을 정보당 100~200㎏정도 고루 뿌린다.

새끼벌레가 피해를 주는 시기에 침투이행성살충제를 뿌려주거나 나무줄기에 주입시켜 죽인다.

본사기자

잔디재배관리에서 왕가물을 극복하려면(3)

잔디재배관리에서 왕가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주기를 잘하고 토양습도를 높이는것과 함께 병해충구제를 잘하여야 한다.

가물철에는 잔디밭에 해충이 많이 발생한다.

주요해충으로는 진디물, 늦벌레, 굼벵이를 들수 있다.

특히 가물철에는 진디물에 의한 피해가 제일 크다. 진디물은 잔디잎의 즙액을 빨아먹어 잔디가 쉽게 시들어죽게 한다.

굼벵이, 늦벌레는 줄기나 잎, 어린 싹, 뿌리를 갉아먹어 잔디가 죽게 한다.

잔디밭에서 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견되면 제때에 농약을 쳐야 한다.

BT생물농약 800배희석액이나 콘히도 1 000배희석액, 알파시페르메트린 800배희석액, 폭심 1 000배희석액을 3일간격으로 2차에 걸쳐 뿌려준다.

가물철에는 잔디밭에 부패곰팽이병이나 여름마름병, 밤색마름병이 발생하여 피해를 줄수 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바찔루스균제 1호를 200배로 희석하여 20일간격으로 4~6회 처리해야 한다.

잔디병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만코제브를 300~400배로 희석하여 3일간격으로 1㎡당 0.5L씩 2~3회 처리하고 바찔루스균제 1호를 200배로 희석하여 10일간격으로 2~3회 처리한다.

잔디재배관리에서 왕가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잔디밭이 왕가물에 의한 피해와 고온피해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왕가물과 고온피해를 동시에 받으면 잔디는 쉽게, 더 빨리 말라죽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잔디밭을 보존하려면 비상대책으로 해가림발치기를 해야 한다. 해가림발은 잔디밭표면으로부터 40~50㎝의 높이에 차광막이나 천으로 칠수 있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실장 리정훈

끝없이 밝고 창창한 선군조선의 미래

혁명의 장래운명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달려있다. 오늘 국제사회계는 세상에 부럼없이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밝고 창창한 모습에서 선군조선의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몽골태권도협회 터그쓰 에르조리그구락부 책임자는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자애로운 령도자의 깊은 관심과 옳바른 교육정책,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속에 자라나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정말 부럽다,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의 앞날은 보다 휘황찬란할것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보장된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아동궁전으로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고난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부의 한 성원은 이곳을 참관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감상록에 야영소가 정말 황홀하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나라의 미래를 담보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나이제리아의 한 인사는 조선에 체류하고있는 기간 참관을 통하여 새 세대들에게 안겨주고있는 조선당과 정부의 뜨거운 후대사랑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라의 장래는 새 세대들의 모습에 비낀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조선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확신하게 되였다.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고 그것을 절감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꾸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도 깊은가를 잘 알게 되였다.

바로 이 사랑과 은정속에 조선의 어린이들은 복받은 행복동이들로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려가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후대들을 위하여 일떠선 희한한 궁전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그야말로 조선은 아이들의 세상이다, 정말 뜨거운 후대사랑의 절정을 보았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열화같은 사랑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지면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광범히 전하고있다.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 까르야》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뜨거운 인간애와 함께 앞날을 확신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국제사회계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았다고 하면서 인터네트홈페지에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으시는분 하면 누구나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꼽을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감복하게 되는것은 김정은령도자의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다.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서해의 외진 섬초소 장재도에 오르시여 태여난지 6개월된 어린이를 한품에 안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모든것을 다 돌려주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의 후대사랑은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김정은령도자를 따라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 잡지, 통신,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원아들에게 새로 입힐 외투견본도 하나하나 보아주신 소식, 인민야외빙상장에서 스케트를 타는 아이들의 귀여운 응석도 받아주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신 소식을 비롯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앞을 다투어 전하였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도 성명들을 발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높이 칭송하였다.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빼루민족독립운동과 김정일장군 빼루친목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후대교육, 후대교양이 심각한 난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조선의 어린이들은 미래를 떠메고나갈 훌륭한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세상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

이것은 영국조선친선협회의 한 성명의 내용이다.

볼리비아조선친선협회도 성명을 통하여 조선은 어린이들의 앞날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나라이라고 격찬하였다.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공인하듯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림 원

남을 걸고들 체면이 있는가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박근혜패당이 최근 《대화》타령을 극성스럽게 외워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의 근본기초부터 완전히 허물어버린 남조선당국의 범죄적망동을 폭로단죄하고 진정으로 우리와 마주앉기를 원한다면 대화상대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부터 갖출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파국의 근원으로 보나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그런데 괴뢰패당은 북이 대화파탄의 책임을 저들에게 떠밀고있다고 제편에서 우리를 마구 걸고들고있다. 6월 4일 괴뢰정부당국자는 그 무슨 《억지주장》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시비질하면서 《대화에 조건없이 호응》해나오라고 고아댔다. 지어 저들이 지금까지 《일관하게 조건없이 대화할것을 제의》해왔다는 실로 뻔뻔스러운 수작까지 늘어놓았다.

흑백을 뒤집으며 대화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발광하는 괴뢰패당의 파렴치한 망동앞에서는 실로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 도대체 괴뢰들에게 그 무슨 《대화》를 입에 올릴 한쪼각의 체면이나 자격이 있는가.

북남대화가 이루어지자면 무엇보다 분위기가 마련되여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은 극한점에 이르고 조선반도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처해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외세와 야합하여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괴뢰패당에게 있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기 위해 정초부터 할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그러나 괴뢰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치에 호응하기는커녕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과 무분별한 전쟁도발소동으로 도전해나섰다.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초는 괴뢰들이 그 무슨 《북의 도발과 위협》이니, 《핵포기》와 《변화》니 하고 고아대며 외세와의 공조하에 국제적인 반공화국도발광대극을 뻔질나게 펼쳐놓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감행한것으로 하여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일관하게 《대화를 제의》해왔다는 괴뢰들이 빚어낸 파국적후과이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먹고 대화의 기회를 서슴없이 차버린 괴뢰패당이 아무 일도 없은듯이 시치미를 뚝 떼며 우리를 걸고드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일당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엉뚱하게 《대화》의 복통을 두들겨대는것은 동족에 대한 극악무도한 정치군사적도발로 북남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한 범죄적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비렬한 술책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대화》타령을 집요하게 늘어놓고있는것은 결코 그들이 우리와 화해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괴뢰들이 《압박과 대화의 병행전략》이니,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화유도》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대화와 압력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와 뻔질나게 이마를 맞대고 우리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의 실효성》을 노린 《대북공조》강화를 추구하고있는것은 그들이 떠벌이는 《대화》라는것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괴뢰패당은 북남대화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동족을 해칠 개꿈만 꾸는 대결미치광이들의 《대화》타령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그런 파렴치한 나발로는 대화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화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를 시비하기 전에 북남관계가 왜 지금과 같은 험악한 파국상태에 처하게 되였는가를 심각히 돌이켜보고 어리석은 반공화국대결정책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이것을 거부한다는것은 결국 저들에게 북남대화의지가 없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는것으로 될뿐이다.

괴뢰패당은 기만적인 《대화》타령만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 대화분위기마련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심 철 영

괴뢰호전광들은 연평도의 불벼락이 결코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패당이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6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95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괴뢰군부깡패들의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소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지난 4일 괴뢰합동참모본부의장 최윤희란자는 최대열점지역인 연평도에 나타나 그 누구의 《기습도발》에 대해 떠벌이면서 《가차없는 응징》이니,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타격》이니 하는 극악한 대결악담을 미친듯이 내뱉았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이달에 들어와서만도 괴뢰패당은 제주도해상에서 《북의 잠수함도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사상 최대규모의 남조선미국 련합대잠수함작전훈련을 벌려놓고 총포를 쏘아대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겨냥한 《4대작전원칙》이라는것을 공개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또한 세계 그 어느 지역에도 없는 미제침략군과의 련합사단이라는것을 편성하고 박근혜까지 흉물스러운 낯짝을 들이민 가운데 새로 개발했다는 미싸일을 쏘아대고는 《북의 전지역을 타격》할수 있게 되였다고 떠들어대며 북침전쟁열을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다.

이것은 날로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우리의 군사적위력에 질겁한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증이며 죽지 못해 안달이 난 정신병자들의 말기증상외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

더우기 송사리같은 최윤희역도가 이미 우리의 불소나기를 맞은 연평도에 나타나 대결악담을 토해낸것은 상전을 등에 업고 허세를 부리는 식민지하수인, 전쟁머슴군의 가소로운 몰골그대로이다.

이로써 오늘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자, 악의 화근은 다름아닌 미국과 박근혜패당이라는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났다.

극악한 전쟁광신자이고 추악한 친미사대매국세력인 박근혜패당의 호전적인 대결악담질과 무모한 전쟁소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있으며 조선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에로 치닫고있다.

그러나 괴뢰패당이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할수록 수치스러운 종말의 시각만을 더욱 앞당기게 될뿐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히 우리와 맞서겠다고 햇강아지같이 푼수없이 놀아대는 박근혜와 그 졸개들의 역겨운 추태에 조소를 금치 못하면서 불을 즐기는 미치광이들에게 연평도불소나기보다 더 무서운 징벌을 가할 만단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군부깡패들을 비롯한 역적무리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퍼부어 씨종자도 없이 모조리 소탕해버릴것이다.

괴뢰패당은 연평도의 불벼락이 결코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도이췰란드단체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소개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이 5월 19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장려》라는 제목으로 조선치마저고리 등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치마저고리는 조선녀성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입어온 아름답고 전통적인 녀성옷으로서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갈로 조선민족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고유한 민족전통의 하나이다.

치마저고리는 색갈과 형태뿐아니라 기호에 따라 여러가지 무늬들을 장식하여 민족의상의 황홀감을 더해주고있다.

조선녀성들은 다양한 형태와 부드러운 색갈의 치마저고리를 무척 사랑하며 결혼식과 명절때마다 입고 나선다.

어린이용치마저고리도 호평을 받고있다.

오늘도 조선녀성들은 아름다운 치마저고리를 즐겨입는다.

글은 또한 우리 민족의 대표적민요인 《아리랑》을 소개하였다.

어 린 이 보 호 노 력

꾸바에서 어린이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1일 쁘렌싸 라띠나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정부의 노력에 의해 이 나라에서 어린이들은 태여나기 전부터 국가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소년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였다.

또한 무료교육제도에 의해 모두가 배울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중등 및 고등교육은 발전도상나라들중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

한편 캄보쟈 부수상이 1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국내에서 어린이영양실조와 소년로동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예방치료를 강화하며 온갖 형태의 소년로동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 미국과 나토의 군사훈련계획 비난

로씨야국방성 부상 아나똘리 안또노브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나토의 군사훈련계획을 비난하였다.

미국과 나토가 올해 가을에 로씨야의 탄도미싸일을 요격하는 군사훈련을 벌리기로 한 계획이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와 같은 군사훈련으로는 로씨야를 놀래울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대응조치를 취할 립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조롱당하는 흑인대통령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실례로 미국의 한 방송사가 성폭행사건에 대한 보도를 방영하면서 흑인혐의자의 얼굴을 보여준다는것이 대통령 오바마의 사진을 내보내여 만사람을 웃기는 일이 벌어진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가관은 방송사관계자가 이에 대하여 의도적인것은 아니고 간단한 실수였다고 대수롭지 않게 둘러친것이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미국집권자의 가련한 처지를 가히 짐작할수 있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개별적방송사의 《화면편집상의 실수》로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백인정치인들속에서는 흑인대통령 오바마를 로골적으로 경시하며 희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공화당소속의 한 백인정치인은 어느 한 만찬회에서 오바마를 비난하다가 흑인으로서의 그의 성장문제까지 거들었다. 그의 발언이 인종문제로 번져져 사회여론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도 그는 다음날 천연스레 오바마를 조롱하였으며 사죄하는것도 거부하였다.

결국 방송사의 《보도실수》라는것도 이러한 정치적배경을 타고 나온 의도적인 《실수》라고밖에는 달리 볼수 없다. 대통령까지도 흑인이라는 리유로 조롱당하고있는 판에 오바마가 제 주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만 벌리면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떠들어대고있으니 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노릇이 아닌가.

안 철 권

이란에서 반미, 반서방시위

이란의 수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5월 29일 미국과 서방의 부당한 요구를 규탄배격하는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미국과 서방이 핵협상의제로 이란의 군사시설들에 대한 사찰문제를 거론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들에는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렬강들의 파렴치한 요구를 배격하는 내용이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리들을 따라 행진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리익과 자주권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제패를 위한 무모한 망동

미국이 신형장거리레이다를 알라스카중부지역에 전진배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에 따라 군수독점체들인 레이디온, 노스로프 그라만, 록키드 마틴회사들이 새 레이다개발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을 벌리고있다고 한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이 레이다의 배비가 조선과 이란의 미싸일들에 대한 감시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전하였다.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워주며 추악한 패권주의적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비렬한 책동은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또한 미국이 5월 25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감행하였다.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미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이 발사되였다. 미국의 발광적인 미싸일발사시험은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한편 미해병대가 최근 하와이에서 해외침략을 노린 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연습에서는 해상에 떠있는 함선으로부터 륙지에 상륙한 양륙정이 다시 해상으로 되돌아가는 훈련이 발광적으로 벌어졌다고 한다.

인권유린의 란무장—미국사회

사람잡이를 업으로 삼는 경찰들

미국에서 백인경찰들에 의한 《흑인사냥》과 그를 비호두둔하는 사법당국의 날치기판결로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도처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는 속에 최근 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경찰이 사람잡이를 업으로 삼고있는데 대해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5월말까지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수가 385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매일 2명이상이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목숨을 잃은것으로 된다고 한다.

지난해에만도 이 나라에서는 거의 1 000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특히 경찰에 의한 피해자들중 흑인이 백인에 비해 3배나 더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권유린의 란무장인 미국사회의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계 속 되 는 총 기 류 범 죄

미국에서 최근 총격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5월 28일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서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한 살림집에 뛰여들어 31살 난 녀성과 7살 난 어린이를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5월에 시에서는 각종 살인범죄가 감행되여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결과 1996년이래 최악의 5월로 기록되였다고 이 나라의 UPI통신이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적인 군사쁠럭은 해체되여야 한다

랭전시대의 대결구도를 되살리려는 시도들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나타나고있다. 최근 나토의회 회의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나토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나라들에 문을 열어놓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나토가 확대되면 그 관할지역이 보다 안정되고 안전한 곳으로 될것이라는 귀맛당기는 소리도 하였다.

나토의 확대가 지역의 안정을 담보하는것처럼 떠드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성원국으로 받아들여 반로씨야정책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고 꾀하고있다. 이것은 억측이 아니다.

나토는 랭전시대의 산물이다.

나토는 이전 쏘련의 《침략》으로부터 서방을 《방어》한다는것을 명분으로 랭전초기에 조작된 침략적군사동맹이다.

랭전이 종식된 후 적수로 되여있었던 와르샤와조약기구가 해체되여 나토의 존재의미는 완전히 상실되였다. 하지만 나토는 해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확대되고있다.

미국은 랭전종식후 나토의 존재명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 무슨 《21세기의 도전》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나토를 《세계적인 안보기구》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평정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획책하여왔다.

침략적인 군사쁠럭인 나토의 확대는 전쟁밖에 불러올것이 없다.

발칸전쟁이 그것을 보여준다.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는 발칸전쟁을 앞두고 더욱 본격화되였다.

1990년대말에 뽈스까, 마쟈르, 체스꼬가 기구에 가입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미국주도의 나토군은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의 간판밑에 당당한 주권국가인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횡포한 군사적공격을 개시하였다. 미국과 나토는 유고슬라비아에 근 80일간 850대의 전투기를 포함한 1 200대의 비행기를 연 2만 5 000회이상 출격시켜 수많은 대상들에 무차별공습을 들이대고 2 000여기의 순항미싸일을 발사하였으며 1만 수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미국과 나토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이 죽고 6 0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만명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나토의 목적은 이전 초대국의 계승국인 로씨야의 전략적공간을 부단히 압축하고 군사적으로 완전포위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하자는데 있다.

로씨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이 로씨야의 기본리익을 고려하지 않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과정은 사실상 유럽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이바지한것이 아니라 긴장격화만을 초래하였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 나토의 군사작전령역은 유럽지역을 훨씬 벗어나고있다. 중동을 비롯하여 세계의 열점지역들에 나토성원국들의 무력이 전개되고있다.

새 세기 패권주의야망실현의 기본수단으로 나토를 리용해먹자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나토무력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평화파괴의 총포소리가 울리군 하였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혼란된 정세도 의심할바없이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로 하여 조성된 결과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이 지역정세가 어떤 국면으로 치닫겠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나토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암적존재이다.

나토의 확대는 다른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호전광들만이 침략적인 군사쁠럭확대의 유리성을 제창하고있다.

오늘 침략적군사쁠럭은 결코 유럽에만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있다. 아시아판나토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내놓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이 지역에서 힘으로 지배권을 유지확대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 가장 리상적인것을 아시아판나토를 조작하는것으로 보고있다. 사실상 랭전시기 유럽에서 나토에 의거하여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을 억제, 붕괴시킨 《경험》에 토대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저들의 잠재적적수들을 억제할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집단적군사기구를 내오려 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내에서는 저들의 동맹국들을 규합하여 아시아판나토를 시급히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나왔다.

아시아판나토창설책동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배경으로 추진되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일본과 남조선은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기본돌격대이다. 손아래동맹자들을 부추겨 대조선포위환을 형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자는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흉심이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군사비까지 줄이고있는 미국은 그로 인한 군사적공백을 남조선과 일본의 힘을 빌어 메꾸려 타산하고있다.

이를 위해 미군부우두머리들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은 일본이 보다 큰 역할을 놀기를 바라고있다는 소리를 자주 하고있다.

재침야망에 들떠있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광기는 오늘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은 결코 유령이 아니다. 그것은 정식 선포되지 않았을뿐이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활발히 가동하고있다. 3자국방장관회담이 해마다 열리고있다. 미국, 남조선사이뿐아니라 미, 일, 남조선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꼬리를 물고 감행되고있다. 남조선은 미국과 야합하여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각종 타격연습을 벌리고 일본은 제땅을 중계기지, 작전기지, 후방기지로 제공하고있다. 3각군사동맹관계의 틀거리안에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고 점령하기 위한 침략전쟁계획실행에 다같이 참가하게 되여있다.

사실상 3각군사동맹은 언제든지 전쟁에 진입할수 있는 준비태세에 있다. 이것은 침략적3각군사동맹이 실제적으로 가동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오늘날 우리의 《핵과 미싸일위협》을 그 어느때보다도 요란히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걸고드는 흉심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토형군사쁠럭을 조작하여 군사적우세로 지역대국들을 견제하고 저들의 침략적인 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확대하면 아시아판나토를 손쉽게 창설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속타산이다.

새로운 군사쁠럭을 창설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보이고있다. 지역의 일부 추종세력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 군사기지를 새로 꾸리고 무력을 배치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다. 어제날 유럽에만 치중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몇몇 개별적인 추종세력들과만 동맹관계를 맺어온 미국은 오늘 이러저러한 나라들 지어 랭전시기 저들의 주요침략대상으로 삼던 나라들에까지 추파를 던지고있다.

프랑스신문 《메디아빠르》는 미국이 새로운 전략적균형이 《북조선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믿지 않고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은 자기의 동맹국들인 일본과 남조선 등을 포함하는 나토와 같은 군사기구를 내오는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오늘 아시아에는 미국이 주요적수로 보는 대국들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첨예한 열점지역인 조선반도가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군사쁠럭을 조작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긴장격화를 더욱 몰아오고 조선반도에 형성된 랭전구도를 지역에로 확대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침략적인 군사쁠럭이 없으면 지구는 보다 평화로와질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미국의 심상치 않은 나토확대와 아시아판나토조작책동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할것이다.

침략적군사쁠럭은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리 현 도

ㄱ-51089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